



불편함 속에서 만나는 하느님과 이웃



최진혁 신부
뉴올리언스 한마음 한인성당, 루이지애나

저는 지난 6월 남미에서 선교하는 신부님을 방문하였고 신부님과 함께 페루와 볼리비아, 칠레를 여행하였습니다. 페루 리마에서 볼리비아의 우유니로 이동한 후 칠레로 넘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당시 현지 사정으로 예정했던 라파스에서 항공편을 이용하기 어려워 버스를 타고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국경을 통과할 때마다 차에서 내려 짐 검사를 받았고 예상보다 오래 기다리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불편한 이동 덕분에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커다란 가방 하나를 등에 매고 긴 시간 버스를 타며 여러 나라의 국경을 넘고 있었습니다. 낯선 음식과 불편한 숙소, 복잡한 출입국 절차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들은 여행을 와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익숙한 집과 음식, 안정된 교통수단과 잘 정리된 일상 속에서 지낼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가방 하나를 메고 낯선 길로

나왔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명화된 사회는 인간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필요한 것은 집 안에서 주문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은 곧바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많은 일을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과 실패는 줄어들고, 하루는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예상대로 해결되는 삶은 때때로 권태를 낳습니다. 새로운 것을 보아도 이미 화면으로 보았던 것이고 필요한 것을 얻어도 누군가에게 고마워할 일은 많지 않습니다. 삶은 편리해 지지만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할 이유도 함께 줄어들습니다.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정작 누구에게 기대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일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풍요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행에서는 익숙한 질서가 무너집니다. 길을 모르고, 말을 알아듣지 못하며, 버스를 기다리고 계획이 어긋나는 일을 겪습니다. 그때 사람은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게 됩니다. 길을 찾는 일과 국경을

넘는 일 한 끼를 먹는 일조차 하나의 사건이 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에 권태가 들어설 자리도 줄어들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행에서는 다른 사람이 필요해집니다. 길을 알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 물어야 했고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손짓과 표정으로 뜻을 전해야 했습니다. 버스와 국경을 오가는 긴 여정 속에서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짐을 살펴 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려 주었습니다.

문명화된 삶에서는 불필요하게 보였던 기다림과 불편함이 여행에서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의 친절과 정이 채워 주었습니다.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나 도움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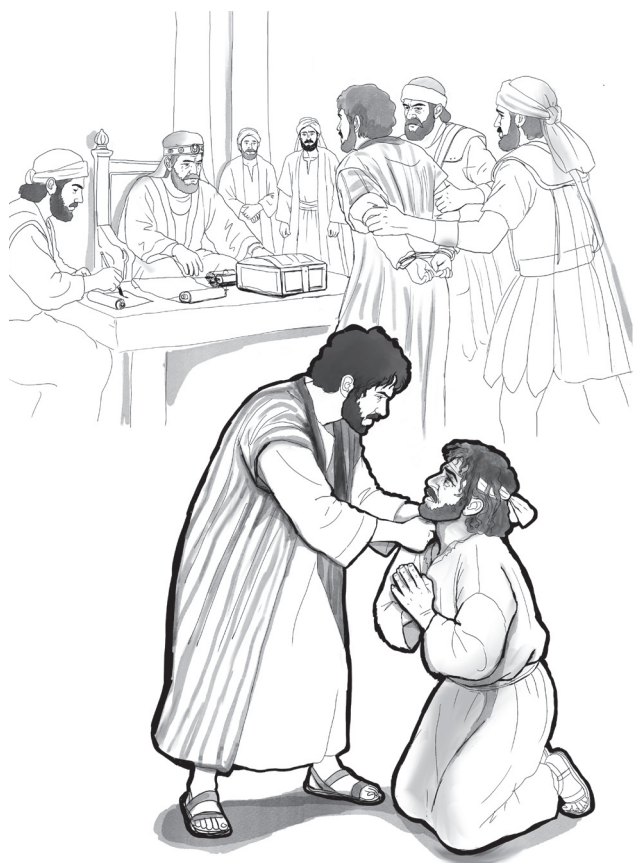
“아웨아레! 하느님, 감사합니다. 역시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군요.”

저에게 이 기도는 여행 제 마음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제로 살아가면서 평생 이어질 기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534

도혜진 카타리나
애들랜타 한국 순교자 천주교회, 조지아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마태오 18, 30)

박우상 요한 박사의 복음 영이

연중 제24 주일

오늘의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잘못된 형제를 절대적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작은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하느님께 대한 우리의 더 큰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우리는 얼마나 용서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마태오 복음서 Matthew 18:21-35

Peter approached Jesus and asked him, "Lord, if my brother sins against me, how often must I forgive? As many as seven times?" Jesus answered, "I say to you, not seven times but seventy-seven times. That is why the kingdom of heaven may be likened to a king who decided to settle accounts with his servants. When he began the accounting, a debtor was brought before him who * owed him a huge amount. Since he had no way of paying it back, his master ordered him to be sold, along with his wife, his children, and all his property, in payment of the debt. At that, the servant fell down, * did him homage, and said, 'Be patient with me, and I will pay you back in full.' Moved with compassion, the master of that servant let him go and * forgave him the loan."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 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섬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섬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approach: 타동. …에(게) 접근하다, 다가가다] [forgive: 자동. 용서하다] [as many as …: …만큼(이나) 많이] [liken: 타동. 비유하다. liken/compare A to B: A를 B에 비유하다] [settle: 타동. 해결하다] [account: 명. 계좌, 회계] [servant: 명. 하인] [debt: 명. 빚. debtor: 명. 빚진 사람, 채

무자. 채권자는 creditor] [huge: 형용. 대단히 큰, 엄청난] [amount: 명. 액수] [order: 타동. 명령하다, 주문하다] [property: 명. 재산] [payment: 명. 지불] [homage: 명. 경의, 존경] [patient: 형용. 참을성 있는] [pay back: 갚다] [compassion: 명. 깊은 동정심, 연민] [loan: 명. 융자]

* who owed him a huge amount (그에게 엄청난 액수를 빚지고 있던); did him homage (그에게 경의를 표하다); forgave him the loan (그에게 그 빚을 용서하다):

여기서 owe, do, forgive는 흔히 여기서처럼 먼저 사람 목적어 (간접목적어)를, 그리고 뒤에 사물 목적어 (직접목적어)를 취해 (owe/do/forgive + 사람 + 사물) …에게 …를 빚지다, 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의 소위 수어동사로 사용되었다. 국내의 영어교육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give, offer, send, tell, teach, buy, get, lend, pay, ask, allow 등과 같은 수어동사이지만 do와 forgive의 경우는 별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숙달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serve (제공하다), hand (건네 주다), deny (거절하다), cost (…에게 … 비용/노력이 들게 하다), earn (벌어/얻게 해 주다), win (얻게/받게 하다), promise (약속하다), secure (보장하다), read/sing/write (읽어/노래해 주다, …에게 글/편지를 쓰다), cause (끼치다, 초래하다), deal (주다, 가하다), feed (먹이다, 공급하다), make (만들어 주다), leave (남겨 놓다), fine (벌금을 물리다), permit (허락하다), tip (팁을 주다), mail (우편물을 보내다), refuse (거절하다), loan (빌려 주다) 등도 종종 이 형태의 수어동사로 사용된다.

[예문]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sins ...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 - 루카 11:3-4)

[예문] Friend, lend me three loaves of bread. (여보게, 빵 세 개만 꾸어 주게. - 루카 11:5)

[예문] The demon ... came out of him without doing him any harm. (마귀는 … 아무런 해도 끼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 루카 4:35)

[예문] The holy Spirit will teach you at that moment what you should say. (너희가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에 알려 주실 것이다. - 루카 12:12)

[예문] Because of the hardness of your hearts he wrote you this commandment.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 마르 10:5)

믿고 함께 하는 감동의 순례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로사리오 성월 크로아티아 드보르브니크+ 메주고리에! 성모님께서 품으신 땅으로! 2026년 10월 3일 - 10월 10일 (7박 8일) 지도사제 - 이병근 대건안드레아 신부님	 항공 + \$ 1,800	성프란치스코 선종 800주년 특별히전 이탈리아 성지순례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서 로마-리에티-아씨시-라베르나 2026년 11월 2일 - 11월 11일 (9박 10일) 지도사제 - 이웅희 루카 신부님	 선착순 30명 항공 + \$ 3,000
한국 성지순례 국제선 별도, 국내선 (김포-제주-부산) 포함 2026년 10월 12일 - 10월 23일(11박12일) 지도사제 - 문창호 마카엘 신부님	 나의 신앙 그 뿌리를 찾아서 한국 성지 순례 항공 + \$ 2,600	성탄절 특별 순례 프랑스 · 스페인 가르멜 영성 여정 2026년 12월 17일 - 12월 28일 (11박12일) 지도사제 - 윤주현 베네딕도 신부님 (신학대학 교수)	 항공 + \$ 3,300
서유럽·발칸·메주고리에 성지순례 2026년 10월 12일 - 10월 23일(11박12일) 지도사제 - 이진희 사도 요한 신부님	 원해 도착 → 찰츠부르크 → 슬로베니아 → 크로아티아 → 메주고리에 항공 + \$ 3,000	2027년 이탈리아 순례 2027년 4월 5일 - 4월 15일 (10박 11일) 지도사제 - 인진교 요셉 신부님	 항공 + \$ 3,300

본당 및 단체 성지순례 상담환영
(212)594-7773 / (646)808-7322

TALK 카카오톡문의 | Maria tour 121
이메일 | MariaTour121@gmail.com
20 Main Street # 314 Little Ferry, NJ 07643

※ 모든 금액은 뉴욕 출발 기준입니다.

www.mariatourusa.com

마리아투어
홈페이지
QR Code
SCAN IT

